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④

일체법은 허깨비처럼 실체가 없다

當知若見無爲入正位者 其人終不能發三菩提心 此即定力多故 不見佛性

가령 수행자가 세속으로부터 진제로 깨달아 들어가는 공관을 뒤야 무위법을 보고 깨달음의 올바른 이치에 들어갔다고 여기면서 이를 구경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끝내 세 가지의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삼보리심은 아득다라삼막삼보리심을 말한다. 이를 번역하면 위없이 진실하고 평등하고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데도 굳이 분별한다면 세 종류의 보리가 있는데, 이는 세 종류 근기와 성품을 대치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진성보리(眞性菩提)이다. 진은 거짓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성은 변개(變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거짓도 아니고 변개하지 않는 것을 진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진성을 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진성보리라고 말한다. 이는 여러개서 깨달은 불교보리(佛果菩提)이다.

이 문제를 경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다시 모든 중생에게 보리심을 일으켜 대승법의 의미를 배우라고 한다면 이는 자신이 해탈하고 나서 역시 중생까지도 해탈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바로 진성보리의 의미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실지보리(實智菩提)이다. 실지는 자기 본성을 관조하는 지혜가 이치에 걸맞아 허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실지를 도로 삼기 때문에 실지보리라고 한다. 이는 연각이 일으키는 보리심이므로 연각보리(緣覺菩提)라고도 한다.

이 문제를 경전에서는 “수행인이 홀로 연각행을 닦으면서 보리심을 일으켰으나 중생들에게는 보리심을 일으켜 대승경전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고 교화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 해탈을 얻게 된다.

세 번째는 방편보리(方便菩提)이다. 방편은 훌륭한 솜씨로 중생의 근기에 호응하여 교화의 작용이 자유자재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편으로서 도를 삼기 때문에 방편보리라고 한다.

다. 이는 대승보살이 수행하는 것이다.

진성보리는 중도를 설명하고, 실지보리는 공을 설명하고, 방편보리는 속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세 가지를 보리심이라고 말한다.

수행자가 속제로부터 진제의 공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은 실지보리의 작은 분야에 불과한데, 이는 지혜는 부족하고 선정삼매 쪽의 힘이 많기 때문에 불성을 보지 못한다. 이로 인해 성문은 한결같이 공작한 경지에 빠져 진실한 성공이 바로 오묘한 속제의 유(眞空妙有)인 것을 밝히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유와 공이 틀어막아 하나의 중도의 이치임을 모른다.

공관서 기관으로 나와야 진실한 보살행 성취 허깨비같은 불사로 허깨비같은 중생 제도해야

다는 의미이다.

그 때문에 여래의 위없는 보리열반인 중도 불성에 있어서 위배하지 않는 가운데 위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성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若菩薩爲一切衆生 成就一切佛法 不應取著無爲而自寂滅 爾時應修從空入假觀 則當諦觀心性雖空 緣對之時 亦能出生一切諸法 猶如幻化 雖無定實 亦有見聞覺知等相差別不同

소승인은 편공을 증득하여 이를 구경각으로 여기므로 공관에서 기관으로 나와(從空出假)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보살은 소승과는 달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공부가 있어 자리이타의 덕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최초 발심할 때 사제(四諦)의 이치를 따라 사후서원을 일으켜 자리이타를 행하면서 모든 법은 허깨비 변화와 같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 허깨비 법으로 허깨비 법을 자연스럽게

일으킨다. 즉 일체중생이 일체불법을 성취하게 한다는 뜻이다. 여래의 법은 십력(十力) 사무의(四無畏)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 등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살도 이와 같은 여래의 법을 성취하게 하려고 모든 법은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 허깨비와 같은 불사를 일으켜 허깨비와 같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래는 무위법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히 무위법에서 적멸한다. 그 때에 공관을 뒤야 기관으로 나와 무위법도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무위의 상

태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위하지 않음이 없으며 적멸이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적멸이 유휴위 밖에서 따로 실재하지 않은 적멸이다.

보살은 이와 같은 이치를 명료하게 통달한다. 그러므로 광대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제도하면서 내가 지금 발심한 것은 인간 천상의 과보와 성문 연각과 대승초기 방편보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최상승을 의지하고 보리심을 일으켜 법계중생과 일시에 아득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여 모든 것이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하기를 발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살의 발심을 중공출가 관이라고 한다.

“제(證)”는 진실을 살펴 허망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관(觀)’은 관찰의 의미이다. 이는 자기 마음 본성을 진실하게 관찰하여 내 마음은 방향도 없고 한계도 없어 끝내 그 실체를 알지 못하지만 인연의 경계를 만날 때엔 일체 제법을 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로는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과 아래로는 육도범부인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 모든 법이 이 마음을 의지해서 있다.

이러한 모든 법은 있다 해도 그 자체의 성질은 공적하며 있다 해도 실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체제법은 단정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없지만 실재 있지 않으면서 인연을 따라 허깨비로 있으므로 역시 견문각지 등의 모습이 차별이 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무생을 설한다 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고 차별상이 없다 해도 차별상이 없지 않음을 말한다.

모든 세간법은 번갯불이나 그림자처럼 여겨야 한다. 이는 금강경에서 말한 “모든 법은 꿈과 허깨비와 물거품과 그림자와 이슬과 번갯불과 같다”라고 한 것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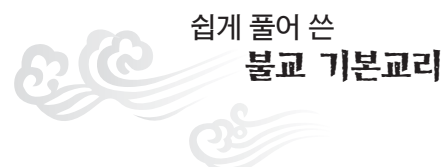
능엄경에서는 “허공은 본래 모든 차별상이 없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모든 차별상이 발현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허공은 자기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따라오는 작용이 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허깨비 변화와 같은 모든 인연법을 실재 있다고 여기는 것은 마치 미술사가 수건으로 토끼나 말을 허깨비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진짜로 여기는 것과도 같다.

대승지관(大乘止觀)에서도 “관으로는 제법이 본래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분별 인연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허망한 세간의 작용이 없지 않다. 이것은 마치 꿈과 같아 실재 있지 않는 것이 허깨비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관찰하는 것을 관 수행이다”라고 하였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스튜디오 제작 보급

동행학원은 지상강의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현대스지관)와 호법유사의 비파서사지 새로운 유산학의 걸작인 유산학의 신유스튜디오 테크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2) 가행위(加行位)3-사종여실지(四種如實智) ① 난위(難位)

가행위는 진여의 이치를 깨달은 견도위(見道位)에 바짝 근접하여 무루진여가 일어나려 하는 순간에 지혜는 분명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동산에 해가 솟으려 하면 먼저 광명이 비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상태의 선정을 명득정(明得定)이라고 합니다.

가행위 가운데서 최초로 얻은 명득정으로 하품심사관(下品尋思觀, 심사관을 상하품으로 나눈다)을 일으켜 인식대상경이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의지해서 난위의 수행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난위 가운데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명·의·자성·차별 등 네 가지 경계는 모두가 주관적인 심식분별이 변화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로 시설해서 있을 뿐 실체를 따로 얻지 못하는 것을 최초로 관할하게 됩니다.

가령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언어를 의식의 분별로 구성해서 표현했을 경우, 그것은 의식분별의 언어적 시설일 뿐 그곳엔 따로의 부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허구적인 대상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무루지혜의 밝은 모습을 증득하게 됩니다. 이는 해일(慧日)이 출현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혜광명이 증득한 선정이라는 의미에서 명득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지에서 진여광명(眞如光)이 목전에 나타나므로 이 수행관을 난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화(道火)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지는 견도위에 근접하여 마치 오랜 여름 속에서 지혜광명의 불을 얻은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정위(頂位)

다음으로 난위에서 얻은 지혜광명이 더욱 증가한 선정을 얻어 상품심사관(上品尋思觀)을 일으켜 인식대상경이 공적한 이치임을 관할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의지하여 정위를 수립하게 됩니다.

즉 이 정위 가운데서 인식대상경인 명·의·자성·차별 등 네 가지 경계가 모두 자기의 심식분별의 변현을 의지해서 임시로 시설했음을 거둬 관할하고 이때에 지혜광명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혜광명은 더욱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명증정(明證定)이라고 하며, 이 경지는 분별심사관의 위치에서는 극치점에 당도했기 때문에 정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頂)은 극치를 의미합니다. 정리=張如舟

39기 기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前)서울 불교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 기치유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윤한홍 교수님 직접 지도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4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9:20 (11주과정) 4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전국 기힐링 센터

교대센터 / 부산센터 / 고양센터 | 대표전화 분당센터 / 대구센터 / 노원센터 |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123회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며 피로운 땀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공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우리를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창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3월 28일(토) 저녁 9시~ 2009년 3월 29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구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개,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 아프신분(팔관예원 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박호락 밴드),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분당 하안마음선원 ■ 전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네비기에이선 하안마음선원 차세로, 분당선 이매역 5번 출구 앞, SK 주유소 옆 도로보 5분거리 (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빙의령은 반야선에 태워보낸다!!

영가장에(빙의)는, 옛적부터 윤회(나고죽음의 반복)하던 동안에 악연으로 인한 업을 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전생의 식)속에 암장(기억)되었다가, 현생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 사람 몸 한번 받기 어려운데, 어찌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빙의로 인한 장애를 이 생에서 치유 못하면, 내 생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빙의작용

- 원인 모르게 악마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실패
• 조상 영가에 의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 빙의의 치유를 여러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천지만물이 반야선 아님이 아닌데 세상만사에 고해하다 전하는 이, 보기 어렵게

성공사례

- 울산의 36세 여교사는 상품광고 및 인터넷 쇼핑에 낭비벽이 심해 빙 더미에서 방향할때,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영가를 반야선에 태워 전상계로 보낸 후 정상적인 삶을 가졌다. 50대에 사망한 시 고모의 혼령이 빙의된 사실을 알았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교생은 영가 258위에 빙의되어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 영가 마다 반야선을 태워 보낸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리산 씨례봉 아래 1100고지 토굴에서 15년간 고행

서진암선운합장

051)783-0858 / 010-6289-1233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11 103호 (반여초등학교 근처)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본 의식 대전은 도량석부터 예불 등 총 183가지의 불교의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 정리 하였으며, 주요의식으로는

Table with 3 columns: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Lists various Buddhist rituals and their compilers.

統合佛敎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 017-552-7350
계좌번호 : 농협 803-02-752331 예금주: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김묘경